



하고 있다. 자유와 책임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다.”

“자유란 단지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 자유야말로 다른 도덕적 가치의 근원이자 전제조건이다. 자유로운 사회는 개개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상의 것을 가져다 준다.”

“모든 정치이론들은 개인을 무지하다고 가정한다. 자유의 가치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개인과 현명한 개인을 둘 다 전제한다는 점에서 이와 차별화된다.”

“개인주의자들은 이성의 한계를 절감하기에 결과적으로 자유주의자가 된다.”

“한번 정부에 주어진 권한은 효과적으로 통제되기 어렵다.”

“통제 받지 않는 정부는 악이다. 어느 누구도 무제한적 권력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경제적 통제란 개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제를 가하는 이들도 결국 어떠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다른 것을 원한다. 우리는 이렇게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목표를 다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유를 추구하게 된다.”

“사유재산 제도는 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않고, 그들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부여된 권력이라고 해서 자의적이지 않다는 믿음은 그 근거가 없다. 민주적 절차란 권력의 원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 권력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법에 의한 지배 하에서 평등이란,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유에 도움이 될 때에만 그 가치를 지닌다.”

“법치국가 속에서 개개인들은 정부의 권력이 노골적으로 개인의 노력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하에 자신들의 목표와 꿈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이전에는 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다른 이들의 허가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이 자랑이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같이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이 있겠는가?” 하이에크가 던진 질문이다. 더해 그는 “자유를 우리 사회의 지적 논의로 만들어내고 우리 마음 속에 살아 숨 쉬는 전통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자유의 전망은 실로 어둡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유주의 철학을 다시금 사회의 전면에 등장시켰다. 우리의 자유가 더 이상 침해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이에크의 사상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본 내용은 <https://fee.org/articles/18-hayek-quotes-that-show-the-importance-of-liberty/>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강상원

이 글은 FEN 경제지식 네트워크 해외 정보 번역 코너 <http://fen.or.kr/?p=4582>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